

■ 20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지원심의 총평

1.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문학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문학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2023.12.7.(목) 14:00~16:00 / 예술가의집 세미나2실
- 심의위원명 : 권 박, 김미희, 오수연, 이근화, 조재룡

2024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은 예술계에 진입한 젊은 예술가들에게 지속적인 창작 및 발표 활동을 촉진하며, 미래 문화예술계를 주도할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에는 총 45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서 결격 사유가 발견된 5건을 제외하고, 총 40건이 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인의 심사위원은 한 달 가까이 걸쳐 신청서 및 필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사전 채점과 전수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이 개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리에 모여 현장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심의위원의 개별 평가를 종합하여, 순위별로 상위 10명의 지원 대상자를 최종 후보로 선정하였고, 각각 이 지원 대상자의 기획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단점, 고유성, 예술성, 실현성 등 전반을 주제로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3건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심의과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심의 관련 유의사항 전반은 물론, 심의 제척 및 회피 제도를 준수하며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올해의 사업에는 시, 소설, 동시, 그림책, 연극-공연, 드라마 극본, 에세이, 평론, 코미디, 번역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서류가 접수되었으며, 특히 에세이, 그림책, 연극-드라마-공연 분야의 지원자가 도드라졌습니다. 국내외에서 작품을 발표할 계획에 따라, 장르를 혼용한 시도 또한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창의적이며, 뛰어난 결과물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자가 상당수에 이르렀으며, 심사위원들은 고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청년 작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지원자의 사업 수행 능력, 예술적 우수성과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신청서를 정밀하게 평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3건의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준 높은 기획이 많았기 때문에 45명의 지원자 중 3명만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선정 과정에 아쉬움이 남았으며, 이는 우수한 청년 예술가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에 선정된 세 분께 축하드리며, 사업 참여를 계기로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예술가분들 역시, 미래에 주목받을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분들의 예술적 열정과 노력에도 응원을 보냅니다.

심의위원 일동

2.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시각예술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시각예술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2023.12.12.(화) 10:00~15:00 / 예술가의집 세미나2실
- 심의위원명 : 김광희, 김장언, 김지연, 안진국, 양효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지원사업과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사업을 통합 개선한 사업으로, 청년예술가 개인에 대한 실질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 400~2,500만원의 지원금액대를 대폭 상향하여 2,000~4,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예술가의 예술계 진입 이후 성장 노력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하여 청년예술가의 지속적 발표활동을 독려하고, 성공적으로 예술계에 안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청년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 시각예술분야는 총 522건이 신청 집계되었으며, 행정결격을 제외한 514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시각예술분야는 5억1천2백만원을 예산으로 배정하였습니다. 5명의 심의위원은 약 1개월동안 신청자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심의위원이 모여 각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사업 수행역량(40%),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30%)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19건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기존 두 사업을 통합한 탓에 신청자들 사이의 경력 차이가 두드러졌지만, 이는 개선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예술가 활동의 N회차를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예술계 진입보다는 기존의 활동을 도약시킬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기존 전시의 후속작업으로 출판기획을 지원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는데, 청년작가에게 출판이 갖는 의미가 큰 만큼, 출판 매체로 발표해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하고, 세부적인 기획이 충실한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청년예술가 대상 사업인 만큼, 동시대성에 대한 평가 역시 관건이 되었습니다. 미술사적인 맥락 안에서 자신의 작품세계를 바라보고, 레퍼런스를 검토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와 자신의 작품세계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신청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표피적인 스타일이나 피상적인 개념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차별화된 시각 언어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신청자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청자들이 지원서를 작성하는 기본 역량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과잉으로 보일 만큼 글의 분량이 길어진 데 반해, 글의 밀도가 떨어지는 경우

가 많았던 점은 아쉽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방법론을 끌어올 경우, 신청자만의 독자적인 시각이 중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생태, 인류세, AI, 퀴어, 사회적 불평등, 탈식민주의, 장소성 등의 주제가 두드러졌고, 비평가들의 언어를 창작의 언어로 그대로 적용하여, 주제와 작품 사이의 괴리를 키우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텍스트로 제시하는 주제의식과 작품 사이 연관성이 낮아 프로젝트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작업으로부터 비롯된 주제의식을 심화시키고, 관련 이론을 충분히 소화하여 자기 언어로 차별화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활동경력에 기반한 사업 수행 역량이 중요한 지표가 되었지만,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작업의 확대 재생산에 머무는 경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내 외를 오가면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경우, 담론 현장 사이에서 달라지는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고려하였습니다. 단체전을 기획자가 아니라 참여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며 이 경우, 작가 개인의 작업 역량보다는 기획의 설득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습니다. 작가 자신의 작업에 대한 지원과 기획에 대한 지원이 혼재되어 지원의 일관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신청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이 4000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바, 대다수의 지원자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최대 금액에 맞추어 과다산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산심의를 통해 항목별 예산설계 내용을 검토하였고, 선정사업의 경우,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에 지원한 모든 청년예술가에게 감사드리며,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에게도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본 사업이 앞으로 청년예술가의 실질적 성장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 가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3.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연극/뮤지컬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연극/뮤지컬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2023.12.15.(금) 10:00~16:00 / 예술가의집 세미나2실
- 심의위원명 : 김민정, 노하룡, 이주용, 정범철, 현수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은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들의 지속적인 후속 활동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지닌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기존의 청년예술가 생애컷지원과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로 나뉘어 있던 지원사업들이 통합된 형태로서, 창작·기획·실연 등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규모를 증대하여 실질적인 후속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연극·뮤지컬 부문에는 행정심의를 거친 329건을 심의하였으며, 4억4천6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최종 15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공고된 바와 같이 수행역량(40%), 예술성 및 우수성(30%),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30%)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의되었습니다. 사업 수행능력은 해당 분야의 기존 활동 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고려했으며, 예술성 및 우수성과 관련해서는 신청 사업의 참신성과 동시대성, 그리고 주제의 깊이와 전달력, 내용과 형식의 유기성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은 공연의 내용과 무대화에 대한 정보의 구체성과 완성도, 구현 가능성 등으로 가늠했습니다.

이번 지원작들은 동시대 소재와 형식에 대한 청년예술가들의 고민과 실험을 엿보게 했습니다. AI·포스트 휴먼·기후 위기와 관련한 내용이 특히 많았으며, 퀴어·젠더·소수자 등의 타자성, 사회적 재난과 상실에 대한 애도를 담은 작품들도 적잖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버바텀 형식의 다큐멘터리 연극, 자기반영성을 담은 메타드라마,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이머시브 형식이 다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대본보다는 창작 과정을 중심으로 한 구상이 많았으며, 플롯보다는 무대화 계획과 연출 양식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지원자와 뮤지컬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지원작이 많은 만큼 치열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독창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꽤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완성도와 전달력도 가늠하게 하는 작품들이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본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놉시스도 일부만 제시된 경우, 그리고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기획과 제작의 컨셉만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위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아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원작의 대부분이 창작극이었는데, 여러번 재연된 작품에 있어서는 보완할 지점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해외 작품이나 고전의 경우에도 무대화와 각색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뮤지컬의 경우에는 기존 경향과 차별화된 시도들이 눈에 띄었던 반면, 대체로 음악의 컨셉과 넘버 구성 등에 대한 충실성은 보충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청자들은 지원규모가 최대 4천만으로 대폭 확대된 것을 최대한 적용하려고는 하였으나 그에 반해 예산과 연간 계획의 충실성은 높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의 연극·뮤지컬 심의에서는 지원 범위가 확장된 만큼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정한 주제나 형식으로 몰리는 경향을 볼 수 있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연극적 실험을 반영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천착하고 있는 독자적인 주제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는 지원자들도 있었습니다. 중견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정교함과는 또 다르게 동시대 사회에 대한 고민을 참신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과정에 담으려는 청년예술가들의 모습이 고무적입니다. 이분들에게 좀 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번에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한 분들이 앞으로 더욱 좋은 기회를 만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4.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무용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무용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2023.12.14.(목) 13:00~15:20 / 예술가의집 세미나2실
- 심의위원명 : 김이경, 박소정, 박재홍, 윤혜정, 제환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지원사업과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사업을 통합, 개선한 사업으로, “진입 후 N차”인 “개인”을 지원합니다. 청년예술가들의 창작에 대한 몰입과 과감한 도전을 돕기위해 지원규모도 최대 4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예술가의 지속적 발표활동을 독려하고, 성공적으로 예술계에 안착하도록 유도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청년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에서 무용분야는 총 121건이 신청 집계되었으며, 행정결격을 제외한 118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무용분야는 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약 1개월 동안 신청자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심의위원이 모여 각 평가 내용을 토대로 신청자의 사업 수행역량(40%),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30%)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8건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지원서의 충실성과 아이디어의 구체성, 독자적인 리서치의 방법이나 주제의식이 선명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작업들의 성과나 연계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안무적 방식/주제/리서치/실험 등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무, 무대, 관객, 신체, 언어 등 무용의 근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에서 출발하여 춤 예술의 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위한 노력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원자들의 기획안에서 자전적 내러티브에서부터, 환경, 평등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나아가 과학, 기술에 대한 접근이나 반성 등 소재의 다양성과 비평적 사유가 보였습니다. 무용(학)과 철학의 이론적 대화가 강조되는 지금의 안무 특징을 청년의 작업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작자의 독자적 관점이나 언어로 구체화되기 보다는 당위적 프레임으로 뭉뚱그려진 경우가 많아 독창성이나 날카로움이 아쉬웠습니다. 둘째, 서류 심의의 특성일 수 있으나 안무적 리서치는 이론이나 텍스트 기반에 출발하는 반면, 춤의 내용은 극장 춤의 조형적 특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리다 보니 안무의 과정이나 창작자의 구체화된 질문으로 연결되고 발전하기보다는, 춤

이 언어에 끼워 넣어서 인식론적으로 개념화되거나, 그것을 도식적으로 시각화하는 과정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춤이 불투명한 사회적 현실을 상징하는 시적인 은유로 단순화되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습니다.

이 밖에도 유행하는 주제들에 대한 공통된 접근이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점, 기존 레파토리의 경우 발전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점, 특정 스타일이 강조된 기획서 작성 방식의 표준화, 장르별 지원자의 쏠림현상 등이 아쉬운 부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창작에 대한 몰입과 과감한 도전을 돕기 위해 지원규모가 최대 4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에 비해 예산 및 일정 계획의 밀도가 높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예산계획서 작성에서 인원구성에 맞는 적정한 사례비, 대관료, 관련 경비 등이 편성되었는가를 확인하였으며 실질적이고 필수적인 항목과 예산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높은 경쟁을 뚫고 기회를 갖게 된 지원자들에게는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년의 상상과 창의가 확장된 여러분 시대의 춤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쉽게도 기회를 갖지 못한 많은 청년 예술가들에게도 격려와 응원을 전합니다. 반짝이고 날카로운 아이디어들이 언젠가 꿈의 무대를 만나기를 응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5.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음악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음악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2023.12.4.(월) 10:00~16:50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 심의위원명 : 왕치선, 이승묵, 이신호, 이원정, 정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지원사업과 청년예술가생애첫 지원사업을 통합 개선한 사업으로, 청년예술가 개인에 대한 실질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자, 기획자, 실연자 등 참여 역할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예술영역에 대한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기존 400~2,500만원의 지원금액대를 대폭 상향하여 2,000~4,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예술가의 예술계 진입 이후 성장 노력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하여 청년예술가의 지속적 발표활동을 독려하고, 성공적으로 예술계에 안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청년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에서 음악분야는 총 302건이 신청 집계되었으며, 행정결격을 제외한 284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음악분야는 3억3천4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약 1개월 동안 신청자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심의위원이 모여 각 평가 내용을 토대로 신청자의 사업 수행역량(40%),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30%)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13건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본 사업에 지원한 청년예술가들 중에는 뛰어난 역량과 우수한 경력을 바탕으로 향후 기대되는 지원자들이 적지 않아 긍정적이었으며,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감되는 문제, 이슈들을 녹여낸 기획도 있어 앞으로의 예술계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어 이 또한 고무적이었습니다. 신청자의 프로젝트 주제와 사업목적, 기획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며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사업 수행방식이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업을 중심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작성한 신청서들도 보였으며, 기존의 작업을 그대로 신청한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은 그룹(팀)이 아닌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청년예술가들이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닌 그룹(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예술가

로서 개인의 성장보다 그룹 프로젝트로 보이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모두 지원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창의적인 기획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예술인들의 프로젝트가 많이 있었으며 앞으로 청년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계가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지원사업에서는 프로젝트의 내용이 우수하나 사업목적, 기획의도에 비해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수행방식이 나타나지 않아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은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작품을 작곡하고자 하는 작품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프로젝트, 창의적인 프로그램 기획력이 보이지 않는 단순 독주회 프로젝트, 해외 문화교류의 경우 해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없이 지원자가 모든 비용을 지원사업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구체적인 해외 일정이 계획되어있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창작에 대한 몰입과 과감한 도전을 돕기 위해 지원규모가 최대 4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에 비해 예산 및 일정 계획의 밀도가 높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예산 항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 기준에 맞게 지원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음악을 기반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기획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청년예술인들의 우수한 프로젝트를 볼 수 있었으며 공공시장에 진입 후, 한 단계 성장을 목표로 하는 청년예술인들의 프로젝트가 청년예술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며 앞으로 미래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 청년예술인으로서 성장이 매우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에 지원한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들은 이번 선정 결과도 하나의 성장 과정으로 양해해주길 바라며, 선정된 지원자들은 지원제도를 도약의 발판으로 잘 활용해 향후 국내 예술계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

6.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전통예술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2023.12.13.(수) 14:00~16:20 / 예술가의집 세미나2실
- 심의위원명 : 김수미, 유민희, 이슬기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은 기존의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2019~2023)과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2016~2023) 사업을 통합하여 장단점을 보강함으로써,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들의 지속적인 발표 활동을 독려하고, 성공적인 예술계 안착을 유도하고자 2024년에 새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문화재단과 민간 주도로 다수 운영되고 있는 신진·청년예술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청년예술가 개인에 대한 실질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창작자·기획자·실연자 등 참여 역할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전통예술분야에는 총 8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 및 심의 평가 기준에 맞추어, 신청자 및 참여자의 역량(40%), 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30%)을 토대로 약 1개월 간 사전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현장 심의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총 7건의 사업에 대해 1억 5,900만원의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심의와 관련한 유의사항 및 제적, 회피제도를 준수하며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심의 지원자들의 신청 사업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첫째, 전통의 계승이라는 명분에 매이기보다는 이미 체화된 DNA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독창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 둘째, 신청자의 역량 및 예술성은 좋으나 단지 개인 발표회 용도에 그치는 사업, 그리고 셋째,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입니다. 본 심의는 첫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 중, 우수한 역량과 창의적인 작품계획을 가지고,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전을 설득력 있게 준비한 지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개인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단체 소속원인 경우, 또 기량이 뛰어난 예술가들이 참여했지만 기존 레퍼토리의 답습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지원서는 전체적인 콘셉트만 있고 작품의 세부 내용이나 그에 대한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검토 시 어려움이 있었고,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예산계획을 지원금 상한액에 맞추기 위해 사례비 등을 다소 과도하게 편성한 신청서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면밀한 심의를 통해, 공적 지원의 목적과 의미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지원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사업을 계획한 바대로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는 청년예술가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산의 한계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대다수의 지원자들에게는 위원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더하여, 향후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예술가는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본인이 실현할 작품 및 공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들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심의회원 일동

7.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다원예술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다원예술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2023.12.8.(금) 10:00~17:00 / 예술가의집 세미나2실
- 심의위원명 : 김정한, 배남우, 윤형섭, 전민경, 홍영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들의 지속적인 후속 활동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기존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와 청년예술가 생애컷지원사업을 통합 개선하고 지원금 규모 또한 최대 4천만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지원횟수 또한 최대 3회까지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청년예술가들이 성공적으로 기성 예술가로 안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사업의 다원 예술분야는 신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예술가로서의 창작과정을 종합하고, 향후 보다 심화된 창작적 성숙기를 준비하는 단계를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장르의 전형성으로부터 그것을 혼성하고, 재발견하며, 비평하는 다원적인 창작접근과 그 결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다원적 창작세계관을 공고히 다지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번 다원예술분야 심의는 접수된 총 203건 중, 행정결격 한건을 제외한 202건을 대상으로 심의하였으며 2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약 한 달간 모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최종 9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심의에서는 창작적 융합에서 단순히 장르적 접붙이기 및 병렬적 접근이 아닌 창작주제와 그에 따른 매체 발견의 관계성, 나아가 해당 매체를 사용하는 창작의 필연성에 주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예술’, ‘퍼포먼스’의 일시성이나 행위성 등과 같은 특정 기준으로 범주화 할 수 없는 영역의 경우 창작의 단계적 구체성과 이를 둘러싼 창작자의 사유에 대한 모색 및 실험이 궁극적으로 창작 원리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주목하였으며 근래에 다원적 접근이 이미 다변화되고 확장됨에 따라 지원서 중 다원예술에서 패턴화되는 창작 형식과 다소 광범위한 주제 및 콘셉트를 사변적으로 다루는 지점, 나아가 기존에 선보인 창작물을 규모나 편집적 변경을 통해 답습하는 접근은 우선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예술가라는 명시에 비해 이미 출중한 경력의 지원자들이 많았기에 우위를 가르기 어려웠으나, 기존 현장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입체적인 주제와 그것을 창작적으로 자기화해 나간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기관 및 유희공간 등 기존에 정해진 창작 공간 및 플랫폼에서 쉽게 다루기 어려운 범주의 주제와 형식에 주목했으며, 그 실험적 시도에 대한 제반연구와 준비, 그리고 설득력 있는 창작언어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의도했는지 또한 주요하게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지원작들의 경향은 일상적 테크놀로지의 진화에 따른 보편화된 기술을 시각적, 청각적, 공간 특정적 창작 요소들과 결합한 융합적 시도, 신체와 신체적 경험성질을 기반으로 한 도심과 공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리서치 창작 접근, 마지막으로 시의적인 주제의 개인화, 질병, 자연성, 원시성에 따른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의 시선들이 돋보인 부분도 있었지만 창작 도약을 목표로 하는 지점에 있어 시도의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인 창작관을 다지기위한 주제의 심화적 접근, 형식 연구의 구체성, 구현과정의 발견을 위한 발전의 미비함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규모가 최대 4천만원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일부 지원신청자들이 최대한 활용하려고는 하였으나 그에 비해 예산계획이 충실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히 장르화 되어있지 않고, 규정되지 않은 모호함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그 성질과 영역이 다원적 창작의 고유한 성격일터. 그 지난한 창작에 대한 도전을 향해 나가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의 타진하고자 하는 창작적 결실이 획득되기를 바랍니다.

심의회원 일동